선거사범 수사 '박차'

법원 "재판 6개월내 마무리"

5·31 지방선거가 끝남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잠시 주춤했던 검찰과 경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선거와 관련, 지난해 1월부터 선거일까지 광주·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되거나 선관위에 의해 고발된 사례는 모두 337건, 669명에 이른다. 경찰은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하고 6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497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벌이고 있다. 나머지 102건은 내사 종결했다.

광주·전남 선관위에 적발된 건수도 700건을 넘어섰고, 이 중 56건은 경찰에, 41건은 검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선거사범도 광주지검 75명, 순천지청 73명, 목포지청 54명, 해남지청 9명, 장흥지청 5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아직도 검·경에 의해 조사 중인 선거사범이 많은 데다 그동안 선거 이후 당선자를 겨냥한 낙선자의 고소·고발 및 비리 폭로가 불거진다는 점으로 미뤄볼 때 선거 후유증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늦어도 2개월 이내 기소'방침을 정한 검찰과 '선거재판은 대법원까지 6개월 내에 마친다''선거사범에 대한 양형을 강화한다'는 법원의 의지에 따라 당선 무효사태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당내 경선을 거치면서 일찍 과열돼 혼탁 분위기가 일었다"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불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선 여부에 상관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멸종위기종 흰꼬리수리 '자연부화' 국내 첫 성공

대전동물원은 1일 사육 중인 매목 수리과의 천연기념물 제243호인 흰꼬리수리(White-Tailed Sea Eagle)가 지난 3월 초 2개의 알을 낳아 한달여만인 4월10일 자연부화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 몸무게는 1.8㎏. 〈사진〉

흰꼬리수리는 몸길이 69~94㎝의 대형 조류로 맹금류 가운데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다. 흰색의 꼬리를 제외하고는 균일한 갈색으로, 유라시아 대륙·한국·일본의 큰 하천이나 해안가에 서식한다. /연합뉴스

■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 광주 광산구의원 최저득표 김동효 후보

"2% 득표에 담긴 희망…도전은 계속"

휠체어 타고 하루 14시간 유세 강행군
선거비 430만원…법 위반 한건도 없어

소설가 박완서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란 수필에는 '푸른 마라토너' 얘기가 나온다. 선두 주자는 이미 한참 전에 결승선을 통과했고, 구경꾼마저 발길을 돌릴 즈음에 가쁜 숨을 몰아쉬며 달려오고 있는 푸른색 유니폼의 마라토너. 작가는 손바닥이 붉게 부풀어 오를 정도로 박수갈채를 보낸다. 정직하게 고통스런 얼굴로 환호 없이도 달리는 꼴찌가 위대해 보였기 때문이다.

5·3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 광산구 첨단 1·2동, 비아동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동효(37·희망사회당·지체장애 1급)씨는 1일 새벽 424표를 얻어 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7명의 후보 가운데 꼴찌였다.

하지만 김씨는 "그래도 희망은 계속된다"며 활짝 웃었다. 남들이 보기에 초라한 성적일지 모르지만,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은 까닭이다.

그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4월20일. 박수부대도 없고, 요란한 로고송을 틀어댈 유세 차량도 없었다. 전과나 세금 체납도 물론 없었다.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만을 가지고 동료 장애인 3명과 함께 하루 14시간 동안 골목을 누볐다.

선거운동이 쉬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대부분의 건물들은 '문턱이 높아서', 문턱을 통과하고 나면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들어가 볼 수조차 없었다. 선거본부장 명기홍(30·척수장애)씨는 선거일을 1주일 여 앞두고 몸져누웠다.

그는 스물여섯이던 지난 1994년 교통사고로 중증 장애인이 됐다. 좌절하는 대신 지난 2004년부터 '광주·전남 장애인인권연대' '광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광주시 저상버스도입추진위원회' 등을 이끌며 장애인 인권운동에 뛰어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내건 공약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 도입▲저상시내 버스 도입▲무료급식 대상자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따뜻한 것들이었다. 선거비용은 딱 430만원. 후보등록을 위한 기탁금 200만 원과 밥값, 사무실 운영비 등이 전부였다.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것은 단 1건도 없었다.

"아쉽지만 감사할 따름이죠. 그나마 뜻있는 주민들께서 따뜻한 세상 만들자는 제 생각에 동조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여성, 노인, 빈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꼴찌'의 계속되는 도전에 유권자들은 뒤늦게나마 갈채를 보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동효씨가 투표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첨단 1동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단체장 낙선…일부 공무원 '공황상태'

가족 입당시켜 선거운동 '올인'
'살생부'까지 나돌자 전전긍긍

현직 단체장이 후보로 나섰다가 패배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황(恐慌) 상태에 빠졌다. 무언(無言)의 압력이든, 인사상 혜택을 노린 자발적 지원이든, 단체장의 '선거 운동원' 노릇을 한 공무원들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들은 1일 삼삼오오 모여 구청장 선거결과에 대해 '의외'라며 놀라워했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까지 현 구청장 소속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시켰다가 명단이 공개된 10여 명의 주요 부서 과장과 계장급들은 새 청장 부임 후 인사태풍이 몰아칠 것이라며 몸을 바짝 낮추는 모습이다.

서구청의 한 6급 직원은 "단체장이 선거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유형 무형의 이익나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산구청의 경우 간부급인 K씨와 P씨, J씨 등의 이름이 들어간 살생부(殺生簿)가 만들어졌다는 풍문(風聞)이 파다하다. 분위기를 의식한 전갑길 구청장 당선자 측은 "우리를 헐뜯기 위해 만들어진 악성 루머"라며 "화해와 상생의 구정을 펴겠다"고 다독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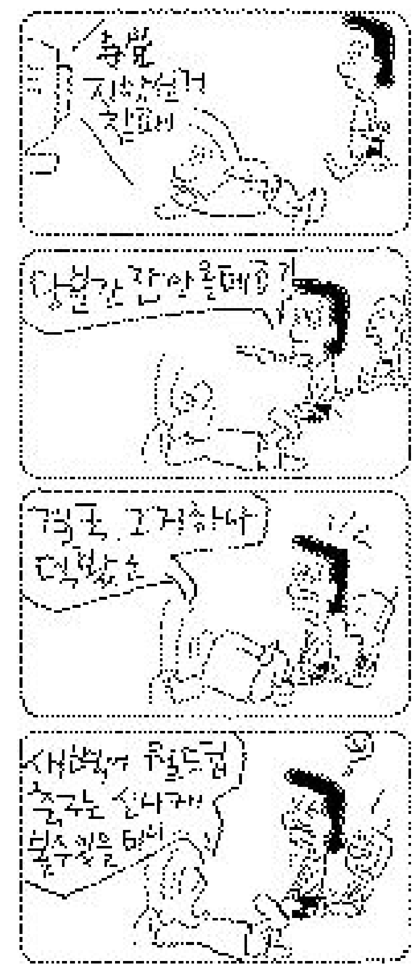
구례군도 730표로 군수 선거의 승패가 갈리면서 군청 공무원들이 아예 선거관련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는 등 긴장하는 기색이 완연하다. "누구에게 편향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직원 부인들에게 현 군수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소문이 나돌았던 화순군청에서도 일부 공무원들이 맥이 풀린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이외 민선 1기 군수를 지낸 조형래 당선자가 권토중래(捲土重來) 끝에 재임을 노린 현 군수를 이긴 곡성군의 경우, 당선자측과 패배한 현 군수 측 사람들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임주형·기원태·김동호·조성수·김계중기자 jhlim@kwangju.co.kr

나원참 〈6844〉 김종두



광주 북구 기초의원 동점자 '해프닝'

쌍나팔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 북구 기초의원 선거에서 동점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앙선관위의 일부 프로그램 오류로 확인되는 해프닝이 발생.

○…중앙선관위는 1일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보내 광주 북구 기초의원 '가'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최무송 후보와 민주당 심재섭 후보가 각각 6천948표를 얻어 두 후보 모두 당선됐다고 공지.

○…하지만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후보가 1천949표, 심 후보는 6천948표를 각각 얻어 심 후보만 당선됐다"고 확인했으며, 중앙선관위도 뒤늦게 당선자를 정정 발표.

○…시 선관위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표 집계는 됐는데, 후보자 간 근소 차 표를 분석하는 일부 프로그램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후보자들의 당락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은 이번 선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됐다"고 설명.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